

# 목양칼럼

## 나 무거워?

몇 년 전 뉴욕에서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습니다. “땅콩 회항? 뭐 말이여?” 모르시는 분들에게 상세한 답변을 이 지면을 통해 드리기가 사정상 어려우니 정말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의 여동생이 최근 어느 미팅에서 자기의 질문에 답변을 못 했다고 그 상대방 얼굴에 물을 뿌렸다고 합니다. “땅콩” 언니에 이어 “물” 동생도 사법처리를 받을 듯합니다.

상대방을 업신여기면 마침내 그 대가를 치르고, 상대방을 존중하면 나 또한 존중함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같이 길을 갑니다. 얼마쯤 가다가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엎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가만 계셔도 될 것을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나 무거워요?” 할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응, 무거워.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 깔았지, 간뎅이는 부었지, 가벼울 리가 있나?” 그렇게 갔던 길을 돌아올 때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엎어 달라고 하고 등에 업혀 물었습니다. “나 무거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무겁긴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너무 가벼워요.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쓸개는 빠졌지....”

봄입니다. 심은 대로 가을에 거두지만, 이 진리는 저 멀리 가을에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 확인되는 진리이니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시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해 주십시오. 말이나 태도로 그를 존중해 주시면 격조 높은 대접을 나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 네, 맞았습니다. 답을 잘 아시는군요. 이제 그렇게 살면서 대접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 깔았지....” 말해놓고 “나 무거워?” 라고 물으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886-5555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Q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진기용/EEP (201)835-3166	소유영/행정 (917)318-7030	전성호/청년선교부 (201)370-3455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어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평정은/유년부 (646)423-3583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최진식/ (646)887-7419
	손요한/중학교부 (646)789-1118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직인	Shen de Guia/QPEM (917)254-7455 오재혁 (646)662-9015		
찬양대	1부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 호산나 찬양대	3부 / 시온 찬양대
	지휘 / 최진식	지휘 / 최경희	지휘 / 소유영
	반주 / 이선영 임세현	반주 / 김정윤 이승은	반주 / 송소영
			4부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강혜영
			반주 / 최미희



#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 머무는교회, 터하는교회, 배우는교회, 나누는교회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장영춘  
PASTOR EVERTUS, REV. YOUNGHOON CHANG

담임목사 김성국  
SENIOR PASTOR, REV. SEOUNG KOOK KIM

주후 2018년 4월 15일  
제 44-15호

## 주일예배 (1,3부)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79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김용생 장로 3부 / 홍승룡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출애굽기 26:1-37	사회자
찬양	CHOIR	주님께 찬양하세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았네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성막을 만들되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204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살아계신 주 / 1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김성국 목사
* 표는 일어섬			

# 주일예배 (2,4부)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사회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영광송 ANTHEM		찬양대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2부 / 허경화 장로 4부 / 송동울 장로
광고 및 환영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 OFFERING & HYMN	204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출애굽기 26:1-37 고린도전서 10:23-33	사회자
찬양 CHOIR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 날 인도하시네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2부 / <b>성막을 만들되</b> 4부 / <b>21세기 크리스천: 친구</b>	김성국 목사 오인수 목사
* 찬송 HYMN	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 기도	설교자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 수료 예배로 이번 주는 쉽니다.

**제 116기 새가족 수료 예배**  
4/18(수) 오후 8:00

**성경 암송 대회**  
4/25(수) 오후 8:00

**모세/하나 선교회 헌신 예배**  
5/2(수) 오후 8:00

## 수요 기도 예배

제 116기 새가족 수료 예배

오후 4:00 (4/18/17)	사회: 박정봉 집사
예배선언	새가족 경찬팀
경배와 찬양	다같이
기도	송동울 장로
성경봉독	누가복음 5:1-11 김경미 권사
특송	Blessing Choir
말씀	김성국 목사

### 이제 후로는

간증	박한나, 전진영	새가족
광고		사회자
수료증 수여		김성국 목사
축복송	야곱의 축복	사회자
축도		김성국 목사

## 교회소식

4월 전도의 달 - 와서 도우라

###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 행사 및 모임

4/18(수) 제 116기 새가족 학교 수료 예배	4/25(주) 성경 암송 대회
5/2(수) 모세/하나 선교회 헌신 예배 / 지도원 성경공부	5/6(주) 어린이 주일
5/9(수) 아론/사라 선교회 헌신 예배	5/11(금) 구역 예배

### 알림

- 퀸장 바이블 칼리지(OBC) 안내** 1) 시간: 매 주일 오후 2:15-3:15  
2) 장소- 1반: 70대 이상 선교회-친교실, 2반: 60대 선교회-고등부실, 3반: 50대 선교회-유년부실, 4반: 40대 선교회-중등부실, 5반: 청장년부-유아부실,
- 제 116기 새가족 학교 수료 예배**가 4/18(수) 오후 8:00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선교회, 지역, 교회학교등 모든 관계자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새 가족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후 7:00에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이번 주 새가족 환영회는 쉽니다.
- 성경 암송 대회**가 4/25(수) 수요일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 제 4회 Us Open 퀸즈장로교회 춘계 친선 골프대회 안내**  
(1) 일시: 4/28(토) 오전 10시 (2) 장소: Middle Island Country Clup(LIE exit 66)  
(3) Fee는 \$90(점심, 저녁포함) (4) 교회에서 오전 7:30 출발 (5) 문의: 윤석현 집사, 박정봉 집사
- 4/21(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시온 찬양대 (다음주: 할렐루야 찬양대)
- 가족기념 장학기금** 채영주 장로, 채현주 권사

### 새가족

구금걸 (청년대학 4Y1) 김가람 (청년대학 2Y1)

### 교우소식

**병 환** 최선일 집사 (최경선 권사, 4LI4)께서 맨하탄 슬로안케터링 병원에서 수술하셨습니다.  
**소 천** 박필녀 권사 (김성애 집사의 모친, 김관복 집사 2F3)께서 4/10(화) 소천 받으시어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김영희 권사 (김병훈 교우의 모친, 김경미 권사 1DG)께서 4/9(월) 소천 받으시어 한국에서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 금식기도자

**주 /** 김화자 최미희 이양미 김미자  
**화 /** 강석훈 김재형 김영오 김송자  
**수 /** 정길표 서천순 손정호 김순례  
**목 /** 팽종철 이금숙 손정호 조성순 석영지  
**금 /** 권오현 이광운 김정운 이금숙 권혜림 조미영  
**토 /** 이경애 김수자 강선미 유수정 정혜경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QBC	오후 02:15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2:3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7:0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 출석

1부 예배	296	러시아어 예배	28	영어부	43	중등부	59
2부 예배	399	청년 선교부	79	유아부	43	고등부	50
3부 예배	324	QBC	318	유치부	39	청년 대학부	43
4부 예배	158	새벽 예배	891	중국어 교육부	25	교회 학교 예배	470
영어 예배	188	수요 기도 예배	187	유년부	95	주일 낮 장년 예배	1769
중국어 예배	297	새가족 환영회	15	초등부	73	주일 낮 총계	2239

## 4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송동윤 장로

헌신기도	이무근 장로	김수산 장로	정길표 장로	차상남 장로
책임권사	양정자 권사	이숙녀 권사	송순애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최경선 오영자 홍지혁 강석춘	김형섭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오성태 송현규 장지숙 정민영	김서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애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정사용	윤지현	최성호

화요일 새가족 환영: 브리스가, 아굴라 주일식사: 교포부(다음주: 청장년부)

##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미션인터네셔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 (프랑스) / 김4희(미국 할렘) / 최동훈(케냐) / 이동철(온두라스) / 이갈렙(중국) / 김호동(불가리아) / 류동하(한국 경남 통영시 사랑도)

## 문답 337 문 : “고난을 받으시”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전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희생으로써 그의 고난은 우리 전체,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의로움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월- 사도신경 / 찬송가 539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창세기 27:22-29

이삭이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에서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를 들은 아내 리브가는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빼앗아 갔다. 형의 축복을 가로챈 동생 야곱, 그는 과연 그 축복을 빼앗아 행복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많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떻게 축복을 받으려 하나요? 축복은 우리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얻으려 하지 말고, 남에게서 빼앗으려 하지 말고, 겸손히 기도하며 간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사도신경 / 찬송가 220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창세기 27:30-40

동생이 형의 축복을 빼앗은 안타까운 일, 이 일이 단순히 야곱, 혹은 리브가만의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아버지 이삭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첫째 아들만 편애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에 목말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야곱을 향했던 것(창 25:21-26)을 앞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에서를 축복하려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맘에 드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들에게만 잘해 주려 하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낮은 자, 연약한 자, 외로운 자, 아픈 자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며 삽시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수- 사도신경 / 찬송가 377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창세기 28:10-14

형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은 에서를 도망하여 하란을 향하게 됩니다. (28:10) 해는 지고, 빈털터리며 머리 둘 곳조차 없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 외로운 이 길이지만, 성경은 야곱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8:15)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시고,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뜻하신 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사도신경 / 찬송가 301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창세기 28:15-22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받을 때, 야곱은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이 약속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동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 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8:20-22)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은 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산다고 착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사도신경 / 찬송가 291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창세기 29:31-35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혼인하려 하였는데, 라반은 야곱을 속여 그의 첫째 딸 레아와 먼저 혼인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야곱에게만 속상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남자와 원하지 않는 결혼하게 된 레아에게 더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동생만을 사랑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 때, 우리는 말씀에서 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다가오시는 한 분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받지 못하는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아픈 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우리를 알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사도신경 / 찬송가 304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창세기 30:37-43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오랫동안 양떼를 치는 일을 했던 야곱은 이제 자신의 집을 세우게 해달라고 라반에게 요구합니다. (30:30) 그리고, 계약을 맺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 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리고, 점 있고 아롱진 양들이 늘어나게 되자, (30:37-43) 야곱은, 그 모든 일이 자신의 지혜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양 떼가 늘어난 것은 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축복과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삽시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 만족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